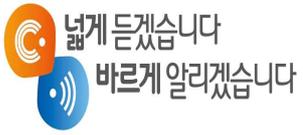


 국토교통부 <small>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</small>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14. 4. 14(월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해외건설지원과	담당 자	• 과장 박병석, 사무관 허나운, 주무관 김진희 • ☎ (044)201-3527, 3537
보 도 일 시		2014년 4월 15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14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해외건설 新시장 진출, 정부지원과 함께 출발!

- 시장개척비용 최대 90%지원,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 기대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서승환)는 해외건설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를 위해 건설·엔지니어링업체들에 올해 시장개척자금 약 38억 원을 지원한다.

○ “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”은 리스크 부담이 큰 해외 新시장 개척비용을 지원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의 프로젝트를 발굴함으로써 시장을 다변화하려는 것으로, 업체의 타당성조사비용, 출장경비,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.

○ 특히,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지원규모 및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다.

* (지원규모) 최대 2억 원 → 3억 원

** (지원비율) 중소기업 최대 80%→90%, 중견기업 최대 50%→80%

□ 세부 지원내역(88개사, 78건 38억 원)을 살펴보면,

○ 업체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 60건 25억 원, 중견기업에 18건 13억 원을 지원하고,

- 진출지역별로는 아시아에 43건 20억 원, 중동에 16건 6억 원, 중남미에 9건 7억 원, 아프리카에 8건 5억 원, 기타 2건 5천만 원을 지원하고,
 - 지원사업별로는 타당성조사에 21건 21억 원, 현지교섭 55건, 17억 원, 발주처 초청 2건 2천만 원을 지원한다.
- 이번 지원규모는 전년 1차 지원 24억 원에 비해 58%나 증가한 것으로, 그동안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목마름을 느끼던 건설업체들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.
-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타당성조사 98백만원/건으로 전년대비 23% 증가, 현지교섭 31백만원/건으로 전년대비 17% 증가하여 그동안 지원현실화를 바라던 업계 수요에 한발자국 다가섰다.
 - 특히, 올해부터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현지에서의 교통량조사, 지반조사, 측량 등에 소요되는 “현지조사비”를 지원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장개척효과를 거둘 전망이다.
- 국토부 관계자는 “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을 통해 앞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기술과 시공능력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,
- 이번에 해외시장개척 지원업체로 선정된 업체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아직 우리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은 미개척국가에 우리나라 건설인의 위상과 능력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 허나윤 사무관(☎ 044-201-352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